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2.15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프랑스, '잠재적 테러 위험인물' 관리 강화 추진
  - 12.9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최근 파리 에펠탑 인근 흥기피습 등 테러사건의 피의자들이 과거 테러 시도 전력이 있거나,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점에 주목해 이들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
    - ※ 현재 프랑스가 관리중인 잠재적 위험 인물의 20%가 환각 증세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, 경찰이 이들에게 정신과 치료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
- EU, 안면인식 통제 등 세계 첫 'AI 규제법' 합의
  - 12.10 언론은 EU가 종교적 신념·인종과 같은 민감한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
    - ※ 규정 위반 시 3천 500만유로(약 497억원)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, 테러 등 용의자 추적을 위한 실시간 안면인식 허용 등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

#### 미주

- 美, 라스베이거스·텍사스 등 연이은 '총기난사'에 공포 확산
  - 12.7 언론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 취업에 실패한 교수(67세)가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학생 등 3명이 사망하였으며,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었다고 보도
    - ※ 한편, 美 텍사스주에서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남성이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연쇄 총격을 가해 9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총기난사 빈발로 시민 불안 확산
- 美 법원, 총기난사로 4명 살해한 고교생에게 '중신형' 선고
  - 12.9 언론은 美 오클랜드 법원이 2년 전 미시간주 한 고등학교에서 살해 대상 선정 등 계획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을 살해한 피고인 「크림블리(17세)」에게 가석방 없는 '중신형'을 선고했다고 보도
    - ※ 同인은 수업 중 무기 정보를 검색하다 적발된 그 이튿날 아버지 총을 가지고 범행

## 아 · 태평양

- 日, 장식용 총기 불법 개조 판매자 체포
  - 12.9 언론은 日 경찰이 러시아와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매한 AK 계열 소총, 기관총 등 11정의 장식용 총을 실탄 발사가 가능한 실총으로 개조해 판매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
    - ※ 용의자 자택에서 소총 19정 등을 압수하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
- 韓 법무부, 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 개정안 입법예고
  - 12.12 법무부는 앞으로 테러범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불인정하고, 이미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발표
    - ※ 現 난민법은 난민 불인정 사유가 ‘국제연합의 목적 등에 반하는 경우’로 추상적이나, 개정안에는 ‘국가안보,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위협’을 구체적 사유로 명시
- 파키스탄, 경찰서 폭탄테러로 최소 23명 사망
  - 12.12 언론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의 경찰서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무장괴한 3명을 사살, 최소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TTP연계 신생조직 TJP\*가 이번 공격을 자처했다고 보도
    - \* Tehreek-e-jihad Pakistan(테릭-에-지하드 파키스탄)은 올해 초 신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로 주로 파키스탄 內 발루치스탄과 카이팍툰과주에서 주로 활동

## 중 동

- 예멘 후티 叛軍, 이스라엘 지원 선박 공격 예고
  - 12.12 후티 叛軍은 홍해 인근에서 노르웨이 유조선 대상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, 지금까지 홍해의 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해 산발적 공격을 이어오다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선언
    - ※ 후티 叛軍이 전쟁에 무관한 민간선박까지 공세를 가하면서 유럽-중동-아시아를 잇는 해상 수송로 안보 우려가 커져 美·국제사회는 다국적군 확대 등 대응방안 고심

이라크, 키르쿠크市 ISIS 소행 폭탄테러 사건

- '22.12.18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인근에서 경찰호송 차량을 겨냥해 급조 폭발물(IED) 공격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, 경찰 9명 사망·2명 부상
- 同 사건과 관련하여, ISIS가 텔레그램을 통해 '자신들의 소행'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위협이 더욱 증대
  - ※ 이라크 접경지대에 주둔하는 ISIS 조직원수는 최소 6천명에서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, 폭탄테러, 납치, 총기난사 등을 자행하며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
- 이에, 이라크 총리는 “비겁한 테러 공격을 저지른 테러 분자들은 보복을 받을 것”이라고 언급하며 ISIS를 비난
- 또한, 키르쿠크 주지사도 이번 테러 이후 분쟁지역의 보안 강화와 함께 테러범의 즉각적인 처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이라크가 테러 단체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게 된 사건 중 하나

< 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(ISIS) >

- (목표/이념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이슬람국가 건설 / 이슬람극단주의
 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 등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, 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4개 지부
- (핵심인물) 아부 알 후세인 알 후세이니 알 쿠라이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·북부 및 시리아 동부지역
- (활동수법)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('19.3) 이후 잔당이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중인 가운데 북아프리카·아프간·동남아 등지로 이동, 재건모색
- (주요동향)
  - '04.6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아국인 근로자 「김선일」 납치·살해 주도
  - '11.5 빈라덴 사망 보복으로 이라크 힐라에서 자폭테러 자행 경찰 96명 사상
  - '18.7 시리아 스웨이다에서 총기 난사 및 자폭테러 자행, 246명 사망